

보험과 회계처리

공인회계사 박병학

< 기본 가정 >

- ◆ 종신보험
- ◆ 월 보험료 : 10,000,000원(20% 소멸성 & 80% 저축성 가정)
- ◆ 10년 납입
- ◆ 매년 납입액 : 1월 ~ 12월까지 매년 120,000,000원
- ◆ 첫째 해지환급금 10,000,000원 가정

< 회사 분개 >

회사에서는 보험료 지급 시 자산으로 회계처리

장기금융상품	120,000,000	/	현금	120,000,000
--------	-------------	---	----	-------------

< 회계법인 - 외부 회계감사 시 >

A. 전액 자산 처리

→ 회사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므로 수정 사항 없음

B. 일부 비용 처리 / 일부 자산처리

→ 소멸성보험료는 비용 처리하고 저축성 보험료는 자산처리(세무회계 상 올바른 방법)
→ 소멸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료 등의 계정으로 영업외비용 처리로 당기순이익 일부 감소

→ < 수정 분개 >

보험료	24,000,000	/	장기금융상품	24,000,000
-----	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

< 수정분개로 인한 효과 >

- ◆ 당기순이익 24,000,000원 감소
- ◆ 자산(장기금융상품) 24,000,000원 감소

- ◆ 비용으로 계상되는 계정이 보험료임 → 외부에 눈에 띄는 계정과목이 아님
- ◆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또는 원가의 변동에 따라 매해 달라지는 금액임
 - 즉 보험으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 계상됨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얼마만큼 감소하였다는 상호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
- ◆ 비유동자산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되는 바, 회계법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 상의 주식에 장기금융상품의 세부내역은 기술하지 않음
 - 즉 외부인의 입장에서 법인명의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음